최정원·홍지민…뮤지컬 스타들, 광주 무대 오른다

서빛마루문예회관 개관 1주년
28일 '뮤지컬 갈라 콘서트'
'캣츠'·'맘마미아' 등 넘버 선봬

최정원

홍지민

광주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이하 서빛마루 문예회관)은 공연문화 확산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지난해 6월 개관한 전문 공연장이다. 총 320석 규모의 객석 외에도 도서관, 시니어 센터를 함께 갖추고 있다.

광주 서구청이 서빛마루문예회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펼친다. 오는 28일 오후 7시 서빛마루문예회관.

뮤지컬 '시카고'에서 열연한 디바 최정원, '맘마미아'의 히로인이자 예능프로그램·영화 등에서 활동 중인 배우 홍지민 등이 출연할 예정이어서 이목을 끈다.

공연은 뮤지컬 '랜트' 중 'season of love'와 'Fly to the moon'으로 막을 연다. 시카고 중 'All That Jazz', 위대한 쇼맨 중 'This is me'에 이어 'Happy birthday To You', '아름다운 강산'도 들을 수 있다.

'Memory'는 세계 4대 뮤지컬로 손꼽히는 '캣츠' 넘버로 잘 알려진 곡이다. 극중 고양이 그리자벨라의 테마곡이며 수 많은 리메이크와 커버를 남길 정도로 인기가 많다. 아련하고 아름다운 가사로 사랑받는 뮤지컬 '알라딘'의 대표곡 'A whole new world'도 레퍼토리에 있다.

홍지민은 뮤지컬 '맘마미아' 중에서 'The Winner Takes It All', '댄싱 퀸'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허스키한 보이스와 가창력을 지닌 홍지민은 TV 조선 '사랑의 콜센타'에서 임영웅과 듀엣곡을 부르기도 했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항복했던 일화를 사랑에 빗댄 '워털루'도 흥겨운 멜로디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웨덴의 아바(ABBA)가 불러 영국 시장을 휩쓴 곡이며, 올해로 발매 50주년을 맞았다.

"워털루, 이 전쟁에서 제가 패배했고, 당신이 승리했어요/ 졌어도 마치 이긴 느낌인 걸요" 등 사랑을 은유한 노랫말이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

대표적인 1세대 뮤지컬 배우 최정원은 '아가씨와 건달들', '가스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비롯해 '마틸다', '프리다', '지킬 앤 하이드' 등 다수 뮤지컬과 연극에 출연해 왔다. '복면가왕', '불후의 명곡', '스타킹' 등 TV 프로그램에서도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이 밖에도 뮤지컬단 윙크, 박규연, 강동석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앨범 '달려라뛰어라'를 발매하고 불후의 명곡, 헬로트로트 등에 출연해 온 김명섭·양시은, 이지현, 시카고 등에서 이름을 알린 지새롬 배우도 무대에 오른다.

서빛마루문예회관 홍보 담당 이준행은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인 만큼 뮤지컬계에서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들을 초청했다"며 "이번 공연 외에도 7월에 펼쳐지는 'In the movical',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마술' 등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관람료 1만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이번 정류장은 플라스틱 정류장입니다' 전시 장면. 〈광주신세계 갤러리 제공〉

폐플라스틱, 작품이 되다

'이번 정류장은 플라스틱…'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신세계갤러리

오늘날 환경 보호, 환경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알려진대로 환경훼손의 가장 큰 주범 가운데 하나는 플라스틱이다.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 쓰고 남은 플라스틱 제품은 어떻게 재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치와 수명은 무한대로 확대된다.

폐플라스틱을 예술적으로 재활용한 팝업 전시가 열리고 있어 이목을 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신세계갤러리에서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류장은 플라스틱 정류장입니다'가 그것. 업사이클링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제작해 온 플라스틱 정류장이 지역 작가 이조흠, 정승원 작가와 함께 전시를 열며, 플라스틱을 활용한 상품들 외에도 콜라보 키링을 제작한 두 작가의 작품도 함께 만날 수 있다.

플라스틱 정류장은 1995년 문을 연 이래 지역 작가들과 협력하며 전시를 진행해왔다. 발산마을 샘몰경로당 어르신들이 고철, 공병을 모아 행복장학금을 기부하던 것이 시초였다. 버려지는 자원의 자원관리장으로 자리잡은 플라스틱 정류장은 환경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수거부터 세척, 건조, 분류, 분쇄, 사출 등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출기 등을 전시하고 영상을 보여준다. 어느 공장의 제품 생산 과정을 집약한 듯한 모습은 폐자원도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자원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시장 벽면에 부착된 팝업 작품들은 현란하면서도 정돈된 느낌을 환기한다. 오밀조밀하면서도 섬세한 작품들은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는 의미를 담아낸다.

아울러 이조흠, 정승원 작가의 대표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1층 광장에서는 무등산, 어등산 등 광주 자연을 모티브로 이조흠 작가의 아트월프로젝트를 선보이는데, 갤러리를 외부로 확장한 발상의 산물이다.

백지홍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구호가 아닌 플라스틱의 다채로운 활용을 매개로 한 팝업 전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폐플라스틱이 얼마나 유용하면서도 예술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3분 '스낵무비', 멀티플렉스관서 천 원에 즐겨요

문병곤 감독·손석구 출연 '밤낚시'
CGV광주터미널점 등 전국 상영

'밤낚시'

숏폼 시대라 하더라도 그동안 멀티플렉스관에서 10분 남짓 '짧은 영화'를 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단편 영화는 독립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업영화관은 일정 러닝타임 이상을 기대하고 찾아오는 관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CGV광주터미널점 등 전국 극장가에서 13분짜리 단편 영화를 상영 중이어서 이목을 끈다. 지난 14일 개봉한 문병곤 감독의 단편 '밤낚시'가 그것.

주연 배우이자 공동 제작자로 '댓글부대', '범죄도시', '연애 빠진 로맨스' 등에서 주역을 맡아 온 배우 손석구가 출연했다. 짧은 러닝타임인 만큼 관람료는 단돈 '1000원'으로 책정했다. 19일 CGV광주터미널점(오후 7시 40분)을 비롯해 20일(오전 10시 50분, 밤 10시 35분), 21일(오전 8시 45분, 오후 3시 45분) 등에 상영 예정.

'밤낚시'는 과자처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낵무비'를 표방하는 만큼 상영 시간이 짧지만 강렬한 내용을 담았다. 현대자동차에서 기획하고 제작했으며 전기차 충전소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일을 다룬 SF 스릴러물 장르다.

밤새 홀로 텐트를 지키는 요원(손석구 분)의 차에서는 수상한 무전이 계속 이어진다. 전기 충전소로 향한 그는 홀로 자리를 잡고 낚싯대를 던진다. 입질이 오기를 기다리는 순간, 무언가 수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영화는 PPL 대상인 현대차 '아이오닉5'의 자동차 카메라의 삼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전개된다. 홀로 '차박'을 즐기며 밤낚시를 하는 손석구의 모습을 자동차카메라로 담는 긴장감 있는 연출을 접목했다. 개봉 후 3일간 1만여 명 관객을 모을 정도로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문병곤 감독은 단편 '세이프'로 한국인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단편 경쟁부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조형래 촬영 감독 등이 촬영팀에 합류해 기대평 및 관람 후기가 쏟아지고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Works 2021_06'

야생의 생태…자연 그대로의 풍광

탁노 '본지풍광'전…29일까지 우제길 미술관

'자연'은 인위가 결부되지 않은 그대로의 양태을 말한다. 자연의 다른 이름은 '생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급격한 도시화로 본래 상태의 자연은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로인한 기상이변은 매년 지구촌 곳곳에 심각한 '생채기'를 낳고 있다.

자연과 생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술가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자연에 대한 감수성, 순진무구한 생태를 동경하는 것은 심리 기저에 드리워진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열망 때문일지 모른다.

탁노(본명 조영설) 작가는 오랫동안 야생의 생태에 주목해왔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훼손되지 않는 생명과 생태를 인류 지향으로 삼고 작품활동을 펼쳐온 것.

탁노 작가가 '본지풍광'을 주제로 우제길 미술관에서 오는 29일까지 전시를 연다.

본래 그대로의 풍광, 본래 자연의 의미를 포괄하는 작품들은 강렬한 주제의식을 내재한다. 그림에서 발현되는 것은 야생성, 길들여지지 않는 고유성이다. 두툼하게 물감을 뭉갠듯 덧칠한 그림은 작가의 심상에 드리워진 원초적세계에 대한 희원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화면에 보일 듯 말 듯 투영된 늑대나 부엉이 등 야생동물은 주제인 '본지풍광'에 수렴됨으로써 자연의 가치를 사유하게 한다.

탁노 작가는 작가 노트에서 "흩뿌리고 느낌이 가는 대로 물감은 화면에서 바람의 작용으로 서로 부딪히고 섞이며 충돌과 화해를 반복한다"며 "붓질이 아니라 바람으로 만드는 그림들이다"고 전한다.

김민경 학예사는 "날것의 야생을 추구하면서도 다채로운 색감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탁노 작가 작품의 특징"이라며 "'본지풍광'을 통해 잃어버린 자연에 대한 회귀를 작가는 그렇게 말없이 웅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 밀양 출신인 탁노 작가는 홍대 미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재학 중 중퇴 후, 전업작가로 방향을 전환했다. 생태, 생존, 야생 등 자연을 모티브로 한 창작활동을 펼쳐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호남에 살며 인문학을 생각하다' 특강

한국학호남진흥원, 21일 김탁환 작가 초청 강연

김탁환 작가

최근 1827년 곡성에서 발발한 천주교 박해인 '정해박해'를 다룬 장편소설 '사랑과 혁명'(전 3권·해냄)으로 제27회 가톨릭문학상 본상을 수상한 김탁환 작가. 그는 지금까지 30권이 넘는 장편을 써온 말 그대로 '작가'다.

얼마 전 기자와의 수상 관련 인터뷰에서 김 작가는 "정해박해는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오랫동안 잊힌 역사로 남아 있었다"며 "곡성에서 시작된 박해가 한양까지 확산해 많은 이들이 고문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고 '사랑과 혁명' 집필 배경을 이야기했다. 김 작가는 '사랑과 혁명' 외에도 '불멸의 이순신' 등 호남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써왔다.

김 작가가 '호남에 살며 인문학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오는 21일 오후 2시 전남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이며, 강연은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이 마련했다.

김 작가는 "지난 2018년 곡성과의 인연이 닿은 후 일명 '사회파 소설'을 쓰면서 안전과 생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며 "이번 강연에서는 호남 지역의 인문학적 감수성과 함께 그동안 펼쳐왔던 마을책방 '생태책방 들녘의 마음'을 토대로 한 활동 등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은 "곡성에 내려와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김탁환 소설가의 강연은 호남 외지의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호남의 역사, 인물, 문화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사유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며 "호남의 인문정신문화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 진해에서 태어난 김 작가는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석·박사 과정에서 고전소설을 공부했다. 해군사관학교, 건양대, 한남대, KAIST 교수를 역임했으며 지금까지 31권의 장편 등을 썼다. '불멸의 이순신', '나, 황진이', '허균, 최후의 19일'은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